

시민들의 생활안전 위한 CPTED 사업 전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2022.10.6.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2022.10.14.



수리부엉이 안전시설물



걷기코스 안내사인



우리동네 안심게시판

출처: 서울시, (2022), 후미진 출입구, 수리부엉이가 지켜본다...서울시 생활안전디자인 확산, 10월 6일 보도자료.

서울시, 골목길에 생활안심 디자인 확산

서울시가 디자인을 입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유도하는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강남구 논현1동, 광진구 자양2동, 중랑구 면목4·7동에 추진·완료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인구학적 특징, 범죄유형 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자치구·경찰과 함께 지역의 특징과 발생 범죄 유형, 두려움 요소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통해 디자인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구가 다가구주택 건물 측면이나 1층 기둥 안쪽 깊숙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 강남구 논현1동에는 '수리 부엉이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조명·반사경·IP카메라로 구성된 이 시설물은 건물 측면 입구가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광진구 자양2동은 인접 상가가 적어 어둡고, 길게 조성된 옹벽길 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곳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옹벽길을 포함한 걷기 코스를 개발하고, 걷기 코스의 시작점이나 조명 취약지역에 안내사인과 조명을 설치하였다. 중랑구 면목4·7동은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대상지 내 주요 안전시설과 중점 순찰 구역을 알리는 '우리동네 안심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활동의 가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시, 청년 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 지원

부산시가 원룸 밀집 지역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홈세트는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방문자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홈 CCTV ▲창문 또는 현관문에 부착해 문 여닫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열림센서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며 지인에게 알려거나 112 신고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휴대용 비상벨 ▲창문이 일정 폭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여 외부 침입을 예방하는 창문잠금장치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약 220명에게 물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1인 가구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였다.